

임플란트 보철물 장착 환자의 하악운동 비교 연구

김양수, 김영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치아 우식증, 치주질환, 외상 등에 의한 치아소실의 진행은 보철치료과정을 필요로하며 최근엔 전악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증가하였다. 이에 전악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물을 갖는 10명의 환자를 16명의 자연치군과 11명의 총의치군의 2가지 대조군과 하악 운동을 비교연구 하였다.

이 실험에는 Sirognathograph (Siemens AG, Bensheim, Germany) 와 BioPAK program(Bioresearch, Milwaukee) 을 이용하였으며 한계 운동과 편측성 기능 저작 운동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시행하였다.

임플란트 환자는 자연치 남자군과 전두면에서의 저작 주기의 폭과 하악 절치기준점의 최대 이동 거리와 시상면에서의 저작주기의 최대 전후방 이동거리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자연치 여자군과 비교할 때 최대 개구속도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총의치 남자군과 시상면에서의 최대 전후방 이동거리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한계 운동 영역 내에서 기능 운동이 차지하는 영역의 비율 분석시 전두면에서의 저작 주기의 폭과 하악 절치 기준점의 최대 이동거리, 시상면에서의 저작주기의 최대 전후방 이동거리에서 총의치 남자군과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총의치 여자군과 시상면에서 저작주기의 최대 전후방 이동거리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